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혜천대학 아동컴퓨터교육과
전임강사 최형성

Dept. of Child Care and Computer Education, Hyecheon College
Full-Time Lecturer : Hyung Sung Cho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 mother, and family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self-efficacy of 416 Korean mothers living in Seoul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child's temperament, and family income, but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stress. Mother's educational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parent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but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stress and family incom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mother characteristics were a strong predictor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Especially, husband's support among mother characteristic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주제어(Key Words):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스트레스(stress), 기질(temperamen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I. 서론

Bandura(1982, 1997)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연구자들에 따르면 양육효

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으나,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과 아동 학대의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이러한 이유에 의해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왔다(Gross, Fogg, & Truker, 1995; Olioff & Aboud, 1991).

양육효능감에 관한 관심이 아직까지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성급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졌으나, 이 변인들을 통합할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연구되지 못한 아동 관련 변인(아동의 연령, 성, 기질, 출생순위), 어머니 관련 변인(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교육수준, 연령, 취업 유무), 가정환경 변인(자녀의 수, 가족 수입)들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 양육의 대부분을 좌절시키므로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아동의 연령과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Mash와

Johnston(1983)에 따르면 과잉 행동증 아동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반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연령 증가가 양육효능감 감소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Johnston & Mash, 1989).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출생 순서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첫째아이를 출산한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Levi-Shih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가 있을 정도로 출생순서와 양육효능감은 무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 양육 중 특히 첫째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직업적 변화를 유도하고 때때로 부모로서의 적응 위기를 겪게 하는 어려운 일이다(Levi-Shihff et al., 1998).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의 출생 순서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변인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Levi-Shiff et al., 1998)도 있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Durn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는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양육 효능감

과 정적인 상관이라고 한다(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eickmann, 1998).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높음을 보고하였으나,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97)의 연구처럼 관련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Dorsey와 동료들(1999)은 어머니의 연령은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보고하였다.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97)도 어머니 연령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이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Scheel & Reickmann, 1998). 가족의 수입은 자녀의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양육효능감 지각과 정적 상관이라고 한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자녀의 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적인 상관이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Scheel & Reickmann, 199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변인들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 양육효능감을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 환경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eg., 최형성, 2002, 2005). 양육효능감은 가정 환경 변인과 더불어 아동과 어머니 개인 변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이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에 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로 부모는 새로운 양육에 대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갖추어 나가야만 하는 시기이다(최형성, 2002). 또한 자녀 양육의 일차 책임자가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

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 관련 변인과 어머니 관련 변인, 환경적인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 관련 변인(아동의 연령, 성, 기질, 출생순위), 어머니 관련 변인(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교육수준, 연령, 취업 유무), 가정환경 변인(자녀의 수, 가족 수입)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아동 관련 변인(아동의 연령, 성, 기질, 출생순위), 어머니 관련 변인(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교육수준, 연령, 취업 유무), 가정환경 변인(자녀의 수, 가족 수입) 중에서 어떤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시내 3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41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설문지를 들고 간 5학년이나 6학년 아동 중 한 명의 아동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요구받았다.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여아가 52.6%였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19세(SD=.72)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어 59.2%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4.3%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사이인 경우가 2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내용	대상자 수*	백분율
어머니의 연령	31-35세	35명	8.6
	36-40세	222명	54.8
	41-45세	124명	30.6
	46-50세	23명	5.7
	51-55세	1명	0.2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	11명	2.7
	중졸	41명	10.1
	고졸	241명	59.2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45명	11.1
	대졸	67명	16.5
대학원졸	2명	0.5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20명	54.3
	전문직	14명	3.5
	관리직	16명	4.0
	사무직	19명	4.7
	판매·서비스직	97명	24.0
	생산직	29명	7.2
	기타	10명	2.5
가정의 한달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5명	3.7
	100만원 - 149만원	47명	11.6
	150만원 - 199만원	61명	15.1
	200만원 - 249만원	94명	23.3
	250만원 - 299만원	69명	17.1
	300만원 - 349만원	50명	12.4
	350만원 - 399만원	19명	4.7
	400만원 이상	49명	12.1
아동의 연령	9세	2명	0.5
	10세	67명	16.1
	11세	197명	47.4
	12세	149명	35.8
	13세	1명	0.2
아동의 성	남자	197명	47.4
	여자	219명	52.6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223명	53.7
	둘째	163명	39.3
	셋째	21명	5.1
	넷째이하	8명	1.9

* 대상자가 416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 때문임.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

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87, .76, .81, .81,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의 사회적 지원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93이었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현희(1994)가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20문항, 4점 척도로 재구성된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 '건강문제', '남편의 직업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8, .83, .77, .80, .67이었다.

4)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이 사용한 아동의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명숙(1994)의 척도와 질문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을 '내 아이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점수는 34점에서 136점

까지이며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 차원에 해당되는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함으로써 기질에 대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 '일반적 활동 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본', '주의 집중성', '지속성'의 내적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각 기질차원의 신뢰도는 .69, .68, .55, .79, .54, .73이었으며, 척도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연령, 성,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및 자녀의 수, 가족 수입

이 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동과 어머니의 연령의 경우 만 나이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별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 유와 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녀 수와 출생 순위는 정확한 숫자로 응답하도록 제시하였고, 아동의 성별과 가족 수입은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무학은 교육 연수 0년, 국졸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교졸은 16년, 대학원졸은 18년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2001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456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부실한 응답을 한 40명을 제외한 416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과 각 변인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문항양호도 검사 및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요인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선행 단계로써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고, 공선성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연령, 출생 순위, 어머니의 교육 수준, 자녀의 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이미 <표 1>에 제시하였으므로, <표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 관련 변인들, 어머니 관련 변인들 그리고 가정 환경 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명목척도에 해당하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3>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는 일반적인 활동수준을 제외한 아동의 기질 각 하위 영역들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모든 하위 영역들 및 가족의 수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모든 하위 영역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 아동의 출생 순위, 자녀의 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과

〈표 2〉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아동의 기질	전 체	2.76	.25
	일반적 활동 수준	2.52	.53
	접근-철회성	2.85	.44
	융통-경직성	2.92	.41
	기 분	3.15	.46
	주의 집중성	2.38	.44
	지 속 성	2.58	.6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 체	3.73	.46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3.60	.5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85	.53
	의사소통 능력	3.85	.47
	학습지도 능력	3.47	.60
	훈육 능력	3.98	.56
어머니의 스트레스	전 체	2.06	.09
	건강문제	1.90	.93
	남편의 직업전환	1.71	.81
	남편과의 갈등	2.09	.83
	경제적 곤란	2.22	.78
	자녀와의 갈등	2.39	.75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전 체	3.70	.60
	남편의 협력	3.78	.65
	주위의 도움	3.62	.75

관련 변인들의 각 하위영역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3).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경우,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가족수입과 정적 상관, 어머니의 스트레스 각 하위영역들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일반적인 활동수준을 제외한 아동의 기질 각 하위영역들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모든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건강문제를 제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모든 하위영역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일반적인 활동수준을 제외한 아동의 기질 각 하위영역들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모든 하위영역들 및 가족의 수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 남편의 직업 전환을 제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모든 하위영역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

원 모든 하위영역들 및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 남편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 및 가족의 수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훈육 능력의 경우 접근-철회성, 기분, 지속성,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과 정적 상관,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아동의 출생 순위, 자녀의 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아동변인, 어머니 변인, 가정환경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의 선행 단계로써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회귀분석의 Durbin-Watson계수는 1.84에서 2.04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간에 체계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허용도,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모두 1이상,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인들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독립변인들간에 상관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하므로 정상적인 중다회귀 분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아동 관련 변인과 어머니 관련 변인 및 가정환경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 = .147$), 어머니 관련 변인($R^2 = .337$), 가정환경 변인($R^2 = .001$)의 설명력은 48.5%이었다($p < .0001$).

〈표 3〉 아동 관련 변인, 어머니의 관련 변인, 가정 관련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변 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전체	(1)	(2)	(3)	(4)	(5)
아동의 연령		-.04	-.03	-.02	-.05	-.06	.00
아동의 기질	일반적 활동 수준	.08	.08	-.02	.06	.16**	.05
	접근-철회성	.25***	.22***	.26***	.23***	.18***	.23***
	융통-경직성	.12*	.09	.10*	.11*	.12*	.08
	기본	.28***	.22***	.24***	.27***	.21***	.29***
	주의 집중성	.19***	.21***	.11*	.19***	.17***	.06
	지속성	.19***	.19***	.12*	.19***	.18***	.10*
어머니의 스트레스	건강문제	-.10*	-.12*	-.08	-.10*	-.05	-.07
	남편의 직업전환	-.11*	-.14**	-.10*	-.09	-.05	-.06
	남편과의 갈등	-.19***	-.22***	-.16**	-.15**	-.12*	-.13**
	경제적 곤란	-.16**	-.18***	-.12*	-.17***	-.07	-.09
	자녀와의 갈등	-.23***	-.25***	-.15**	-.23***	-.16**	-.14**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64***	.60***	.55***	.58***	.46***	.48***
	주위의 도움	.48***	.40***	.42***	.43***	.43***	.36***
어머니의 교육 수준		.07	.04	.02	.04	.22***	-.03
어머니의 연령		-.05	-.01	-.07	-.05	-.08	-.00
아동의 출생 순위		-.01	.04	.00	-.03	-.07	-.02
자녀의 수		.00	.02	.00	-.04	-.04	-.01
가족 수입		.18***	.19***	-.01	.15**	-.23***	.08

(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학습지도 능력, (5) 훈육 능력
 * p<.05, ** p<.01, *** p<.001

관련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122$), 어머니 관련 변인($R^2=.283$), 가정환경 변인($R^2=.005$)의 설명력은 41.0%이었다($p<.000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105$), 어머니 관련 변인($R^2=.257$), 가정환경 변인($R^2=-.001$)의 설명력은 36.1%이었다($p<.0001$).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132$), 어머니 관련 변인($R^2=.216$), 가정환경 변인($R^2=.000$)의 설명력은 41.8%이었다($p<.0001$).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119$), 어머니 관련 변인($R^2=.236$), 가정환경 변인($R^2=.008$)의 설명력은 36.3%이었다($p<.0001$). 훈육능력의 경우, 아동 관련 변인($R^2=.108$), 어머니 관련 변인($R^2=.195$), 가정환경 변인($R^2=.001$)의 설명력은 30.4%이었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 관련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 뿐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 관련 변인이었으며, 가정환경 변인은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관련 변인과 어머니 관련 변인 및 가정환경 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주의집중성, 융통-경직성, 아동의 성, 접근-철회성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전체	(1)	(2)	(3)	(4)	(5)	
		β	β	β	β	β	β	
아동변인	연령		-.03	-.02	.02	-.04	-.07	.01
		성	.08	.10	.03	.10	.02	.11
	기질	일반적 활동 수준	.04	.04	-.05	.02	.09	.08
		접근-철회성	.09	.09	.09	.06	.05	.07
		융통-경직성	.05	.03	.07	.06	.04	.01
		기분	-.01	-.05	-.02	.01	-.00	.09
		주의 집중성	.06	.10	.03	.06	.06	-.05
지속성	.02	.01	.01	.04	.03	.00		
출생순위		.06	.11	.09	.07	-.09	.02	
어머니 변인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48	.45	.41	.45	.30	.38
		주위의 도움	.24	.18	.23	.22	.24	.16
	스트레스	건강문제	-.05	-.01	-.02	-.09	-.03	-.07
		남편의 직업전환	.08	.07	.05	.09	.02	.11
		남편과의 갈등	.07	.01	.03	.15	.06	.04
		경제적 곤란	-.03	-.05	-.03	-.09	.10	-.02
		자녀와의 갈등	-.08	-.09	-.04	-.08	-.08	-.04
	교육수준		.01	-.02	-.00	-.01	.14	-.08
	연령		-.04	-.03	-.09	-.03	-.07	.03
	취업유무		-.06	-.04	-.07	-.02	-.09	-.10
	가정변인	자녀의 수	-.05	-.06	-.05	-.09	.09	-.07
가족 수입		.03	.05	-.04	.00	.10	-.00	
R ²		.49	.41	.36	.42	.36	.30	
F		16.49***	12.15***	9.89***	12.60***	10.00***	7.65***	

가변수 - 남아 : 0, 여아 : 1, 어머니의 취업 무 : 0, 유 : 1

(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학습지도 능력, (5) 훈육 능력

*** p<.00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주의집중성, 자녀와의 갈등, 아동의 성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의 경우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남

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아동의 성, 지속성, 자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어머니의 교육수준, 일반적 활동 수준, 지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기분, 아동의 성, 취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 변인	β	R ²	F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	남편의 협력	.33	.394	251.83***
	주위의 도움	.15	.444	34.70***
	주의집중성	.10	.451	5.27*
	융통-경직성	.17	.457	4.02*
	아동의 성	.06	.462	3.46+
	접근-철회성	.17	.465	2.76+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36	.337	197.62***
	주위의 도움	.13	.362	14.61***
	주의집중성	.12	.375	8.39**
	자녀와의 갈등	-.07	.383	4.81*
	아동의 성	.09	.390	4.1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남편의 협력	.34	.289	157.65***
	주위의 도움	.15	.332	25.15***
	접근-철회성	.11	.340	4.33*
	어머니의 연령	-.05	.345	3.13
	취업유무	-.06	.349	2.11
의사소통 능력	남편의 협력	.33	.329	199.22***
	주위의 도움	.15	.367	22.98***
	아동의 성	.08	.375	4.93*
	지속성	.06	.381	4.24*
	자녀와의 갈등	-.08	.387	3.49
	남편과의 갈등	.06	.394	4.67*
학습지도 능력	남편의 협력	.30	.209	102.59***
	주위의 도움	.21	.269	31.66***
	어머니의 교육수준	.05	.306	20.45***
	일반적 활동 수준	.12	.322	9.09**
	지속성	.07	.326	2.55
훈육능력	남편의 협력	.31	.226	112.99***
	주위의 도움	.12	.250	12.72***
	기분	.13	.263	6.94**
	아동의 성	.12	.272	4.73*
	취업유무	-.10	.280	4.00*

가변수 - 남아 : 0, 여아 : 1, 어머니의 취업 무 : 0, 유 : 1
 * p<.05, ** p<.01, *** p<.001

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관련 변인(아동의 연령, 성, 기질,

출생순위), 어머니 관련 변인(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교육수준, 연령, 취업 유무), 가정환경 변인(자녀의 수, 가족 수입)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을 제외한 아동 관련 변인, 취업 유무를 제외한 어머니 관련 변인, 가정환경 변인들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관련 변인 중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들은 양육효능감 전체와 각 하위 영역 모두에서 대체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아동의 연령과 출생 순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사회적 지원의 각 하위영역들은 양육효능감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들은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양육효능감 중 학습지도 능력에서만 강력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양육효능감 전체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정환경변인 중 가족 수입은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습지도 능력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 하위영역들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에 관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이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신숙재(1997)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제공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남편에게서 받는 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 Shapiro와 Mangelsdorf(1994)의 연구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자녀의 양육이란 부부

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이며 부부 공동의 일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협력이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양육효능감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과의 높은 관련성을 이미 인식하고, 최근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바람직한 부모 양육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Brookman-Frazee, 2004; Dempsey & Dunst, 2004; Desjardin, 2003; Gross, Fogg, & Truker, 1995; Martin & Sanders, 2003). 이러한 현 추세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다른 변인에 비해 양육효능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순한 기질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1986), Mash와 Johnston(1983),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접근-철회성과 기분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자녀가 회피하지 않고 이를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아동이 즐거운 기분을 보이는 것과,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에 회피하지 않고 접근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여 온 부모로 하여금 자신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여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의미있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간의 의미있는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Kotchick와 동료(1997), Levy-Shiff와 동료(1998), Durnka와 동료(1996), Scheel과 Reickmann(1998)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중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은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갈등이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부

모-자녀간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편과의 갈등이 양육효능감과 부적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남편의 지원이 양육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듯이(Shapiro & Mangelsdorf, 1994), 남편과의 갈등이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요인임을 생각해 보게 한다.

양육효능감 중 학습지도 능력이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eickmann, 1998; Teti & Gelfand, 1991).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어머니들일수록 학습지도 능력에 높은 효능감을 가지는 경향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바람직한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지적 능력, 높은 교육 수준을 얻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친정이나 본인의 경제적 여유를 자녀 학습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것, 높은 지적 능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주위 사람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학습지도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공유할 많은 기회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가족의 수입이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요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족의 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의 수입이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Elder와 동료들(1995)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가족 수입이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수입이 높다고 반드시 높은 양육효능감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지각하게 해 준다. 요즘 부모들은 수입이 많으면 많은 데로 적으면 적은 데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만을 남겨둔 채 자녀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이 아예 적은 사람들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적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프로그램 및 교구, 교재에 대해 욕망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은 효능감을 소유하는 경향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수는 양육효능감 전체와 각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 순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수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Johnston과 Mash(1989), Scheel과 Reickmann(1998), Dorsey와 동료들(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나 어머니의 연령, 출생순위,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지원, 가족의 수입, 교육수준 등이 양육효능감에는 더 큰 의미를 갖는 변인임을 염두에 두고 양육효능감 신장을 위한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 관련 변인이 아동관련 변인이나 가정환경 변인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일 때 뿐 아니라 각 하위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논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양육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능감을 가지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남편의 도움, 낮은 스트레스, 교육 정도, 취업 등이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아동과 관련되는 변인들과 어머니와 관련되는 변인들 그리고 가정환경과 관련되는 각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위의 도

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양육효능감 전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훈육능력 영역에서 여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학습지도 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의 경우 취업한 어머니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훈육능력 영역에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은 하위영역을 통해 양육효능감 각 영역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하위영역을 통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연령, 출생 순위, 자녀의 수, 가족 수입은 양육효능감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이 양육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에 관한 지원이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부모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남편의 협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 양육이란 부부 공동의 책임이기에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양육효능감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eg., Shapiro & Mangelsdorf, 1994).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들은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지원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여 프로그램 개발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여

아와 동성으로써 비슷한 성장 과정과 감정 경험 등을 겪었던 것이 자녀의 마음 이해와 양육의 수월함을 느끼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학습지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논의 첫째 부분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논의 둘째 부분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취업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 능력에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취업으로 인해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방과 후 아동의 활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연령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나이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자신이 없으며, 실제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도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는 이미 논의 첫째 부분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논의 둘째 부분에서는 생략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효능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대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되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뿐 아니라 유아 및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양육효능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양육효능감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 예를 들면 가난이나, 장애아, 비행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5). 남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적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 (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Brookman-Fraze,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6(4), 195-213.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ger, J. J. (1984).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3rd ed.). New York : Harper & Row.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mpsey, L. & Dunst, C. J. (2004). Helping styles and parent empowerment in families with a young child with s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 Developmental Disability*, 29(10), 40-51.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ross, D., Fogg, L., & Tuc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rtin, A. J. & Sanders, M. S. (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 Mash, E. J. & Johns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Olioff, M. & Aboud, F. E. (1991). Predicting postpartum dysphoria in primiparous mothers: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self-efficacy and self-esteem.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5, 3-14.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4년 11월 30일 접수, 2005년 2월 17일 채택)